

대한제국기 永春郡 游巖里 농민층의 토지소유와 경영형태

김 의 환 *

-
- I. 머리말
 - II. 유암리의 주민 구성과 주거 환경
 - III. 농민층의 토지 소유와 경영 형태
 - IV. 맺는말
-

I. 머리말

조선시대 군현은 호구와 토지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大邑·中邑·小邑·殘邑 등으로 구분되었다. 오늘날 단양군의 영춘면은 조선시대에는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는 영춘현이었고, 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 때 충청도가 충청남북도로 나뉘면서 영춘군이 되었으며, 1914년 지방제도가 바뀔 때 단양군에 흡수되었다.

영춘은 토지가 척박하고 물산이 풍부하지 않은 작은 군현으로서 충청북도 제천시와 강원도 영월군에 접해있다. 남한강 근처에 명승이 많아 조선시대부터 시인묵객이 자주 왕래하였던 단양과 달리 문화적으로 소외되었고, 주민들의 삶도 다른 지역보다 궁벽하였다. 이 때문에 영춘현감이었던 洪樂安은 “많은 산 가운데 있어 궁벽하고, 넓은 들판

*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이 없으며, 10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 없다.1)”고 하였다.

지금까지 마을사 연구는 향약·동계자료·호구단자·분재기 등 주로 고문서 자료를 활용하여 신분 구성과 변동양상, 가족 형태, 호의 구조와 혼인형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2) 마을 주민의 구성원과 주거형태 및 개인의 경제상황과 농업 경영형태 등 내부문제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한제국 시기 다양한 마을의 모습과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새롭게 광무양안이 활용되고 있다. 광무양안은 그동안 시주와 시작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제도와 토지소유 및 농업경영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여전히 경제사 분야에 치중한 연구가 대부분이다.3)

최근에는 군현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와 관련된 새로운 모습을 규명하고 있으며4), 한편으로는 현지 자료조사와 후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여 다양한 마을의 구조와 토지소유는 물론 개인 지주에 대한 사례 연구와 함께 읍성의 구조를 복원하는데 이용되는 등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5)

1) 『承政院日記』 제1831책, 純祖 즉위년 12월 15일(癸亥).

2) 이혜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 정진영, 1999,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 호적대장 연구팀, 2003,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권내현, 2004, 『조선후기 족보를 통한 동성촌락의 복원』 『대동문화연구』47 ; 김건태, 2008, 『조선후기~일제시기 전통 동성촌락의 변화상』 『대동문화연구』62.

3) 김홍식 외, 1990,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민음사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1995,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 이영훈 외, 1997,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 한국역사연구회 토지대장연구반, 2010, 『대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대』, 해안.

4) 신영우 편, 2007,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해안 ; 2010, 『광무양안과 충주의 사회경제구조』, 해안 ; 2012, 『광무양안과 진천의 평산신씨 무반 가문』, 해안.

5) 서태원, 2008, 「대한제국기 충주군 양안을 통해 본 연원마을」 『역사와 실학』37 ; 김의환, 2010, 「충주 豊德 마을의 모습과 농민층의 토지소유-진주이씨 진안대군과 동쪽마을 사례」 『역사와 실학』42 ; 남금자, 2011, 「대한제국기 충주 안동김씨 김갑규의 가계와 경제기반」 『한국사연구』154 ; 정경임, 2011, 「광무양안을 통해 본 충북 소읍민의 경제상황」 『충북사학』

이 글은 영춘군의 촌락 사회 내부의 모습과 이곳에 거주한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생활상의 일면을 검토한 것이다.⁶⁾ 필자는 충주 풍덕리의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지역과 자연환경은 물론 사회경제적 조건이 달랐던 영춘군 游巖里를 대상으로 주민의 구성과 주거 환경 및 농민층의 토지소유와 경영형태를 검토하여 당시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이를 위해 영춘 사족의 동향과 함께 유암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던 강릉유씨의 입향과정과 향촌활동을 살펴보고, 마을 주민의 구성과 가옥 규모 등 생활환경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마을에 거주한 농민층의 토지소유와 경영형태를 충주·진천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 마을에는 추수기 등 토지와 관련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광무양안과 『토지조사부』를 서로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며, 이것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II. 유암리의 주민 구성과 주거 환경

영춘은 단양에서도 지세가 높고 더욱 험한 곳에 위치하여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들의 삶은 가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永春縣學重修記>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⁷⁾, 조선시대에 영춘에는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였다. 토성은 趙·尹·鄭·秦씨였고, 사라진 성씨는 石씨였으며, 다른 곳으로 이주한 성씨는 李씨였다.⁸⁾ 『輿地圖書』에도 이들의

26 ;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2, 『충북 생활문화 디지털 복원』, 충청북도·국립민속박물관·(재)충청북도문화재단연구원.

6) 영춘군의 토지 현황과 경작 및 농민층의 경제사정은 다음을 참고할 것(정경임, 2011, 「광무양안을 통해 본 충북 소읍민의 경제상황」 『충북사학』26).

7) <永春縣學重修記>(1868).

8) 『世宗實錄地理誌』 권149, 충청도 영춘현 ;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충청도 영춘현.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새로운 성씨들은 대체로 성종 대 이후 정치적 사건과 전란 및 혼인을 계기로 입향하여 사족사회를 형성하였다. 동족마을은 17세기 이후 주자가례의 보급과 예학의 발달, 상속제도의 변화, 종법적 가족제도의 수용 등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성되었는데⁹⁾ 영춘의 동족마을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¹⁰⁾

<표1> 영춘의 성씨와 동족마을

성 씨	동족마을	입향시기	입향조	인물
인동장씨	어상천면 연곡리	성종대	張義孫	張東武
	단양읍 별곡리		張孟翼	張忠植
강릉유씨	영춘면 유암리	성종대	劉仁夫	劉吉順
양천허씨	영춘면 여천리	중종대	許天迪	許櫓
영월엄씨	영춘면 사이곡리	중종대	嚴岡壽	嚴在龍
강릉김씨	영춘면 용진리	명종대	金論東	金尙昌
창녕조씨	영춘면 동대리	선조대	曹世器	曹時榮
한양조씨	가곡면 덕천리	인조대	趙懋	趙鍾文
파평윤씨	영춘면 용진리	인조대	尹彙義	尹行弼
삼척김씨	영춘면 의풍리	인조대	金斗山	金順立
전주이씨	가곡면 사평리	효종-현종	李汝標	李陽貞

영춘의 사족들은 대체로 조선 전기와 중기에 입향하였다. 특히 영춘에는 ‘許劉兩姓’이라는 말이 있듯이 양천허씨와 강릉유씨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입향 후 혼인과 관직 진출 및 여러 사회경제적 관계를 맺고 사족사회를 형성하고 유지시켜 나갔다. 이들의 구체적인 향촌활동은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으나, 순조 25년(1825)에는 향약을 실시하여 향촌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¹¹⁾

9) 정진영, 1991,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21, 국사편찬위원회.

10) 김의환, 2012, 「영춘의 세거성씨와 동족마을」 『永春鄕校誌』, 영춘향교.

11) 『鄕約儒籍』; 김의환·이근호, 2012, 「영춘 사족의 동향과 향약 실시의 성

이때 향약 실시를 위한 통문은 齋長 許菜老, 도유사는 許堯一, 향교의 장의 劉宅周, 향청의 좌수 劉命應과 별감 許允一이 주도하였다. 향약의 유사는 許裕祖가 도약정, 허요일과 유명응이 부정, 유택주가 직월 겸 유사, 劉震亨이 유사를 맡았다.¹²⁾ 이때 양천허씨는 총 223명 가운데 75명이 참여하였고¹³⁾, 강릉유씨는 47명이 참여하여 영춘 향약을 이끌었다. 이 외에 영월엄씨는 17명, 전주이씨는 16명, 인동장씨는 12명이 참여하였다.¹⁴⁾

다음으로 유암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했던 강릉유씨에 대해 살펴보자. 강릉유씨의 시조는 고려 문종 때 송에서 건너온 劉莖이다. 그 후 고려 말에 9세 劉權은 거창에 은거하였고, 12세 劉敞은 개국공신으로서 초대 대사성을 지냈다.

영춘에 자리잡은 계열은 판서공파이다. 5세 劉贊은 대사헌, 6세 劉昇은 상호군, 7세 劉海는 진현관 대제학을 지냈고, 8세 劉沿은 좌참찬과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9세 劉承備부터 11세 劉天鳳까지 3대 연속으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유천봉의 아들은 각각 옥성군·이조판서·대사간·병조판서를 지냈고, 그 가운데 4남 劉治의 아들인 13세 劉仁夫가 성종 때 삼척으로부터 영춘에 들어와 복거하였다. 그는 세조가 강릉에서 별시를 설행할 때 무과에 급제하여 수군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

이 가문은 유인부 이후 무반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유인부와 그의 아우 劉仁秀는 모두 무과에 급제하였고, 그의 장남 劉朴孫은 만

격」『중원문화연구』16·17합집.

- 12) 향약의 발문은 유명응이 지었다. 그의 세계는 13세 인부→14세 朴孫→15세 克佑(5남)→21세 漢重→22세 명응으로 이어진다. 유명응은 <구향교중창기>와 <향교이건기>(1811)를 지었다.
- 13) 동주사공과는 許天迪이 중종 때 처가에 입향하였는데(양천허씨세보편찬위원회, 1960, 『陽川許氏世譜(東州使公派)』), 그 후 許楨(1832~1906)과 그의 아들 許憲(1862~1891)이 효로써 정려를 받아 어상천면 대전 2리(황학동)에 정려각이 세워졌고, 많은 영춘향교의 직원과 전교를 배출하였다.
- 14) 인동 장씨는 張義孫이 성종 때 입향하여 한말에 張忠植(1836~1901)과 張益煥 부자가 유인석의 을미의병으로 활동하였다(구완희, 2004, 「한말 을미의병기 장충석의 생애와 의병노선」 『조선사연구』14).

호와 어모장군을 지냈으며, 2남 劉亨孫은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다. 손자 劉克孝는 충순위, 劉克忠은 절충장군, 劉克弼은 충순위를 지냈다.¹⁵⁾

이 가문은 영춘면 유암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여 활발한 향촌활동을 전개하였다. 순조 25년(1825) 영춘 향약 실시 때 劉命應(1767~1833)을 비롯하여 47명이 참여하는 등 이 지역사회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특히 향청의 좌수와 향약의 부정을 맡는 등 지역의 향권을 주도하였고, 영춘의 광무양안에는 1결 이상을 소유한 강릉유씨가 5명이었다.

다음으로 유암리의 주민 구성과 주거 환경에 대해 살펴보자. 영춘의 유암리는 사곡리에서 59번 국도를 따라 영월로 가는 길가에 있다. 마을 서쪽에는 삼태산을 경계로 여상천면 대전리가 있고, 동쪽에는 영월군과 인접하여 단양군·영월군·제천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유암리는 원래 車衣谷面 소속이었다. 조선후기에는 37호의 편호로 구성된 마을이었고¹⁶⁾, 1950년대까지도 100호 정도 살았다고 한다.

대한제국 시기 이 마을의 토지가 분포한 곳은 모두 17곳이었다. 광무양안에는 日峴谷[해고개]·小伊介[작은골]·葛峙[노갈]·上游巖[상유암]·東來塔·中游巖[중유암]·妙莫谷[요막골]·月谷·望池谷[망기실]·旺堡谷[터실]·新基坪[생기들]·芳山美[방살미]·寺谷[절골]·龍湫谷[용구마이]·大東谷[대동골]·舞童峙·集實谷[집실]이 나타나 있다.¹⁷⁾ 광무양안에 표기된 유암리의 토지 17곳 가운데 주민이 살았던 곳은 8

15) 유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75, 『劉氏大同譜』. 강릉유씨의 항렬은 22세(命○)→23세(必○)→24세(○周,○萬)→25세(○祖)→26세(震○)→27세(○淳)→28세(乘○)→29세(○烈)→30세(載○)로 이어진다. 필자가 확보한 족보에는 諱가 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당 인물의 字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

16) 『輿地圖書』上, 忠淸道, 永春, 坊里.

17) 마을의 지명들은 유상엽(78세)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부분 확인하였고, 대부분 音借되어 한자로 표기되었다. 東來塔은 상유암 입구의 연못 가에 있던 사람 크기 만한 돌을 가리키며, 이 돌 때문에 마을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군데였다. 일현곡·소이개·갈치·상유암·망지곡·왕대곡·용추곡·대동곡에 62호가 거주한 마을이었다.¹⁸⁾

당시 유암리에는 유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성씨별 구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유암리의 주민 구성

성씨	거주 마을과 호수								거주 호수	
	일현곡	소이개	갈치	상유암	망지곡	왕대곡	용추곡	대동곡	호	비율
유	1		5	9	3		2		20	32.3
허						5	5		10	16.1
엄			1	1	4	1			7	11.3
이			1		4				5	8.1
김					2	2			4	6.5
박					3				3	4.8
원			2						2	3.2
전		1		1					2	3.2
손						1	1		2	3.2
정					1				1	1.6
한						1			1	1.6
조						1			1	1.6
주	1								1	1.6
고						1			1	1.6
류							1		1	1.6
윤								1	1	1.6
계	2	1	9	11	17	12	9	1	62	100

18) 광무양안에 기재된 호수는 혼인과 함께 분가한 단혼소가족 형태의 호적의 호수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의 호적은 실제 호의 1/2~1/3 정도밖에 파악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이세영,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7).

유암리에서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망지곡과 왕대곡 및 상유암이었다. 망지곡에는 17호, 왕대곡에는 12호, 상유암에는 11호, 갈치와 용추곡에는 각각 9호씩 거주하였다.

유암리에 살았던 주민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유씨였다. 전체 62호 가운데 유씨는 1/3에 해당하는 20호(32.3%)였다. 이들은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던 강릉유씨인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특히 상유암과 갈치에 많이 모여 살았다. 다음은 허씨가 10명(16.1%)이었고, 엄씨는 7호(11.3%)였으며, 그 외에 이씨·김씨·박씨 등이 일부 거주하였다.

조선후기 영춘군에는 6개면에 元戶가 1,257호 있었는데, 인구는 남자가 2,277명이었고, 여자는 2,426명으로 모두 4,703명이었다. 차의곡면에는 37호의 유암리를 비롯하여 모두 220호의 편호로 구성되었다.¹⁹⁾

유암리에 거주한 주민들의 이름과 가옥의 규모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유암리의 주민과 가옥

위 치	규모(칸)	거 주 자
일현곡 (2호)	2	유경로·주한관 (2호)
소이개 (1호)	2	전득용 (1호)
갈치 (9호)	2	유덕현·엄성옥·유경명·원행오·유경서·유성익·이경선 (7호)
	3	원정백 (1호)
	4	유덕호 (1호)
상유암 (11호)	2	전호현·유성율·유경일·유윤일·유경원·엄치로·유성여·유선경 (8호)
	3	유정범·유유성·유용범 (3호)

19) 『輿地圖書』上, 忠淸道, 永春, 坊里.

위 치	규모(칸)	거 주 자
망지곡 (17호)	2	이경선·유순필·박공선·박목여·유용여·이경집· 엄학여·이성범·김성순·엄성숙·엄운집 (11호)
	3	김영보·박성필·엄국원·이경춘·정대준 (5호)
	5	유성철 (1호)
왕대곡 (12호)	2	엄춘명·허덕민·허현철·현순철·허용철·김영순· 손덕원·조안지·김춘서 (9호)
	3	허현·허양옥·고경침 (3호)
용추곡 (9호)	2	류문옥·허운옥·허중협·허이관·허수여·허명수· 유보여 (7호)
	3	유보일·손경서 (2호)
대동곡 (1호)	3	윤사범 (8호)
합 계		62호

당시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외에 가옥의 종류와 규모이다. 영춘군 양안에는 총 2,595호의 가옥이 나타난다. 가야면에 495호, 군내면에 503호, 대곡면에 235호, 동면에 388호, 어상천면에 603호, 그리고 차의곡면에 371호가 있었다.

기와집은 관아 건물을 비롯하여 모두 42호가 있었다. 군내면에 20호, 차의곡면에 7호, 가야면에 5호, 동면에 5호, 어상천면에 4호, 그리고 대곡면에 1호가 있었다.

유암리에는 초가 2칸에서부터 5칸까지 다양한 규모의 집이 분포하였다. 1902년 이탈리아의 주한 외교관이었던 까를로 로제티는 한국의 집들은 대부분 ‘움막’이라고 하였는데²⁰⁾,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전개될 때까지도 대부분의 농촌가옥이 초가집이었다. 이 마을의 집은 기와집 2채를 제외하고 모두 초가집이었다.

20) 까를로 로제티 저·서울학연구소 譯, 1996, 『꼬레아 꼬레아니』, 숲과나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은 망지곡에 거주한 劉成七의 5칸짜리 기와집과 갈치에 거주한 劉德好의 4칸짜리 기와집이었다. 마을에 두 체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李京先이었는데, 그는 갈치와 망지곡에 2칸짜리 초가집을 2채 소유하였다.

이 마을의 주거 사정은 영춘군 전체의 가옥 규모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영춘군의 가옥 사정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영춘군의 가옥 규모

칸	1	2	3	4	5	6	7	8	9	10	계
호	260	1,553	599	128	43	4	5	1	1	1	2,595
비율	10.0	59.8	23.1	4.9	1.7	0.2	0.2	0.04	0.04	0.04	100

영춘군 전체에서 2칸 초가집은 1,553호로 59.85%를 차지하였고, 3칸 초가집은 599호로 23.1%를 차지하였다. ‘초가 삼 칸’이라는 말이 있듯이 2~3칸의 집이 전체의 82.9%나 되었다. 유암리에는 2~3칸짜리 집이 무려 96.8%나 되어 다른 지역은 물론 영춘 전체의 사정보다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다. 충주군의 경우 2칸이 26.0%, 3칸이 46.0%로 2~3칸이 전체의 72.0%인 것²¹⁾과 비교하면, 영춘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유암리의 가옥규모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유암리의 가옥 규모

칸	2	3	4	5	계
호	45	15	1	1	62
총 칸수	90	45	4	5	144
비율	72.6	24.2	1.6	1.6	100

그리고 마을 62호의 집은 총 144칸이었으므로 주민들은 평균 2.3칸

21) 신영우, 2010, 「대한제국기 충북 충주의 주거 사정」 『역사와 실학』42, 21~46쪽.

규모의 집에서 살았다. 이것은 영춘군 전체 농민의 평균인 2.3칸과 일치하였다. 이곳은 괴산군 능촌리의 2~3칸 가옥이 79.1%였고, 그 규모는 평균 3.45칸이었음을 생각할 때 전형적 산촌이었던 마을의 가옥 규모가 작았음을 알 수 있다.

Ⅲ. 농민층의 토지 소유와 경영 형태

지금까지 광무양안에 표기된 시주와 시작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양지아문의 正書冊과 토지대장·광무호적·족보를 비교한 결과 代錄과 分錄·合錄 때문에 실제와 다르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현실의 토지 소유자와 소유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실질 조사부’라는 견해도 있다.²²⁾

당시 광무양안의 조사와 기재 내용은 지역마다 다양하였다. 충북은 鎭川·忠州·槐山·永春 등 9개 군현 자료를 모두 입력한 결과 소유주와 경작인의 파악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한다.²³⁾ 다만 모든 시주는 소유권을 가진 개인 지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혼소가족제 아래에서 토지의 소유권과 경제적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²⁴⁾ 호적상의 호와 달리 생활과 노동을 함께 영위한 ‘農家戶’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이영훈, 1992, 「광무양전에 있어서 <시주> 파악의 실상(Ⅱ)-경기도-충청도 광무양안 사례분석」 『성곡논총』23 ; 김건태, 2010, 「양전과 토지조사사업의 陳田과 ‘主’ 파악」 『규장각』37 ; 최윤오·이세영, 1995, 「광무양안과 時主의 실상-충청남도 온양군 양안을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23) 충북의 광무양안은 다른 지역보다 실제에 가까운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충주 풍덕리의 시주와 시작은 대부분 족보에 나타난 실명이었다(김의환, 2010, 앞의 논문), 앞으로 양안과 『土地調査簿』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24) 김건태, 2002,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인구기재 양상-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45 ; 손병규, 2008, 「조선후기 상속과 가족형태의 변화」 『대동문화연구』61.

영춘군의 광부양안은 6개면의 12책이 남아 있다.²⁵⁾ 영춘군의 전체 토지는 밭이 455결 29부 9속(63.0%)이었고, 논이 226결 45부 9속(31.3%)이었으며, 대지가 40결 70부 6속(5.6%)으로 모두 722결 46부 4속이었다. 영춘군 전체 토지는 산촌의 특성에 따라 밭이 논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차의곡면의 토지는 밭이 85결 68부 2속(70.8%)이고, 논은 35결 38부 7속(29.2%)으로서 모두 121결 9부 9속이었다. 영춘군 전체에 비해 밭이 더 많았다.²⁶⁾

유암리에는 일현곡·상유암 등 모두 17곳에 토지가 분포하였다. 특수한 전답에는 용추곡과 왕대곡에 驛田이 있었고, 상유암에 官屯田이 있었으며, 망지곡에 郷校의 토지가 있었고, 사곡에는 沙谷洞 토지가 있었다. 마을 토지의 분포와 규모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유암리의 토지 면적과 비율

위치 \ 면적	밭의 면적		논의 면적		계
	결수	비율	결수	비율	
일현곡	56-9	94.0	03-6	6.0	60-5
갈치	2-37-4	74.6	80-9	25.4	3-18-3
상유암	3-09-2	67.3	1-49-9	32.7	4-59-1
동래탐	46-3	90.6	04-8	9.4	51-1
중유암	04-8	8.2	53-4	91.8	58-2
소이개	82-0	100	0	0	82-0
요막곡	40-7	50.6	39-8	49.4	80-5
월곡	48-2	43.9	61-6	56.1	1-09-8
망지곡	3-85-9	62.3	2-33-5	37.7	6-19-4
왕대곡	1-52-3	74.3	52-7	25.7	2-05-0

25) 地契衙門, 1902, 『忠淸北道 永春郡量案』(규장각, 17687).

26) 정경임, 2011, 앞의 논문.

위치 \ 면적	밭의 면적		논의 면적		계
	결수	비율	결수	비율	
신기평	72-9	78.3	20-2	21.7	93-1
방산미	03-9	100	0	0	03-9
사곡	38-6	66.2	19-7	33.8	58-3
용추곡	1-64-7	54.8	1-36-0	45.2	3-00-7
대동곡	54-0	41.8	75-2	58.2	1-29-2
무동치	39-3	39.3	60-6	60.6	99-9
집실곡	32-1	74.3	11-1	25.7	43-2
계	17-69-2	63.8	10-03-0	36.2	27-72-2

당시 유암리의 토지는 모두 27결 72부 2속이었다. 밭은 17결 69부 2속(63.8%)이었고, 논은 10결 3부(36.2%)이었다. 유암리는 영춘군 전체와 차의곡면과 같이 밭이 더 많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에서 토지가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望池谷과 上游巖 일대였다. 망지곡에는 마을 전체 토지의 22.3%인 6결 19부 4속이 있었고, 상유암에는 16.6%인 4결 59부 1속이 있었다. 이 외에 3결 이상의 토지가 분포한 곳은 3결 18부 3속(11.5%)의 葛峙와 3결 7속(10.8%)의 龍湫谷이었다. 그리고 모두 밭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논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中游巖(91.8%)과 舞童峙(60.7%), 大東谷(58.2%)과 月谷(56.1%)이었다.

유암리에 거주한 성씨들은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였는지 그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7>과 같다.

<표7> 유암리의 성씨별 소유와 경작 현황

성씨	호수	소유 규모		경작 규모	
		결수	비율	결수	비율
유	20	5-31-6	19.2	8-99-5	32.5
허	10	5-28-4	19.1	5-20-7	18.8
엄	7	2-89-2	10.4	3-06-6	11.1
이	5	3-13-5	11.3	2-83-6	10.2
김	4	53-0	1.9	80-7	2.9
박	3	59-7	2.2	1-44-7	5.2
원	2	59-8	2.2	1-16-7	4.2
전	2	01-4	0.05	10-2	0.4
손	2	1-36-6	4.9	78-6	2.8
정	1	1-25-4	4.5	33-8	1.2
한	1	04-2	0.2	52-1	1.9
조	1	1-04-1	3.8	74-5	2.7
주	1	21-7	0.8	30-3	1.1
고	1	04-5	0.2	31-3	1.1
류	1	0	0	20-8	0.8
윤	1	57-0	2.1	39-8	1.4
기 타		4-82-1	17.4	48-3	1.7
합 계	62	27-72-2	100	27-72-2	100

유암리의 토지 27결 72부 2속 가운데 마을에 거주한 16개 성씨가 소유한 토지는 22결 90부 1속(82.6%)이었다. 이들이 직접 경작한 것은 이보다 많은 27결 23부 9속(98.3%)이었다. 20호가 거주한 강릉유씨는 5결 31부 6속(19.2%)을 소유한 채 8결 99부 5속(32.5%)을 경작하였고²⁷⁾, 여천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한 10호의 양천허씨는 5결 28부 4속

27) 영춘군 전체에서 1결 이상을 소유한 105명 가운데 유씨는 모두 5명이었다. 劉在元은 2결 80부 1속, 劉益烈은 2결 5부 3속, 劉興宅은 1결 68부 4속, 劉德浩는 1결 26부, 劉德一은 1결 14부 1속을 소유하였다(地契衙

(19.1%)을 소유하여 5결 20부 7속(18.8%)을 경작하였다.

그리고 인근의 사이곡리에 동족마을을 형성한 영월엄씨는 2결 89부 2속(10.4%)을 보유하고, 이씨는 3결 13부 5속(11.3%)을 소유하였다. 이 4개의 성씨가 마을 토지의 대부분인 60.0%를 소유하였고, 경작은 이보다 많은 72.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이 마을에 거주한 주민 가운데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유암리의 개인별 토지소유 규모

	지주(시주)	총소유지	총경작지	차경지	거주지(칸)
1	허 현	1-99-9	78-5	28-6	왕대곡(3)
2	유덕호	1-26-0	1-04-7	0	갈치(4)
3	손덕원	96-4	57-5	01-0	왕대곡(2)
4	김영보	79-9	44-4	00-8	망지곡(3)
5	허양옥	69-8	87-9	18-1	왕대곡(3)
6	원정백	51-9	71-6	42-6	갈치(3)
7	유덕현	48-9	58-0	10-2	갈치(2)
8	유경일	40-8	01-8	01-8	상유암(2)
9	유윤여	35-4	36-3	00-9	망지곡(2)
10	유경서	34-9	35-7	00-8	갈치(2)
11	허덕민	33-1	39-3	06-2	왕대곡(2)
12	허명수	33-1	22-4	01-9	용추곡(2)
13	주환관	32-1	30-3	0	일현곡(2)
14	이성범	30-1	91-7	61-6	망지곡(2)
15	유윤일	27-9	35-9	08-0	상유암(2)

門, 1902, 『忠淸北道永春郡量案』(규장각, 17687).

영춘군의 대지주 가운데 최고의 지주는 29결 80부 6속의 張千鉞이었고, 2위는 12결 51부 1속의 烏沙驛, 3위는 10결 89부 5속의 黃基水, 4위는 6결 69부 6속의 李允植, 5위는 6결 48부 8속의 校宮, 6위는 5결 84부 9속의 趙鍾永, 7위는 5결 34부 5속의 官屯田이었다. 10결 이상의 지주는 모두 3명이었고, 5~10결은 4명, 4~5결은 5명, 3~4결은 10명, 2~3결은 9명이며, 1결 이상은 모두 105명이었다.²⁸⁾

유암리에 거주한 농민 가운데 영춘군 전체에서 1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불과 2명뿐이었다. 許鉉은 旺堡谷[토실]에 3칸짜리 초가집에 살면서 1결 99부 9속을 소유한 채 다른 사람의 토지 28부 6속을 차경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78부 5속을 직접 경작하였다. 劉德浩는 葛峽[노실]에 4칸짜리 기와집에 살면서 1결 26부를 소유한 채 차경지는 전혀 없이 1결 4부 7속을 경작하였다.

劉成七은 望池谷[망기실]에 5칸짜리 기와집에 살았으나, 토지는 전혀 소유하지 않고 1결 25부의 많은 토지를 차경하였다.²⁹⁾ 마을에서 유일하게 갈치와 망지곡에 가옥 2채를 소유한 李京先은 13부 9속을 소유한 채 17부 3속의 차경지를 포함하여 31부 2속의 토지를 경작하였다.³⁰⁾

당시 유암리 농민층의 토지소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충주·진천 등 다른 군현에 비해 대지주가 없고 토지 소유의 규모가 적다는 점이다. 유암리 농민 가운데 1결 이상 소유한 사람이 2명에 불과하였고, 최대 지주인 許鉉의 소유 규모는 1결 99부 9속이었다. 이는 충주군 풍덕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³¹⁾, 궁벽한 산촌의 특성을

28) 정경임, 2011, 앞의 논문.

29) 영춘에서 가장 많은 29결의 토지를 소유한 장천쇠는 5칸짜리 초가집을 소유하였고, 4결을 소유한 장석기는 10칸짜리 초가집과 12칸짜리 기와집을 소유하였다.

30) 개인 지주의 가문적 환경과 활동 및 경제생활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보완하려고 한다.

31) 평야에 위치한 충주군 풍덕리의 농민 100명 가운데 1결 이상 소유한 지주는 37명이었다. 1~2결은 14명, 2~5결은 17명, 5~10결은 3명, 10결 이상은 3명이었다(김의환, 2010, 앞의 논문, 211~214쪽).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둘째, 농민들이 적은 규모의 토지를 경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차경한 규모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농민 가운데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劉成七만이 1결 25부를 차경하였을 뿐 대부분은 70부 이하의 적은 규모를 차경하였다. 박성필이 66부 8속, 이성범이 61부 6속, 한순철이 52부 1속, 유용범이 50부 3속을 차경한 정도였다. 이것은 농지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경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지역 사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셋째, 다른 지역과 달리 경영지주와 병작지주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영지주는 직영지 경영을 확대하여 지주경영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지주이고, 병작지주는 직접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대부분 타인에게 대여한 지주층이다.³²⁾ 마을에 이러한 지주가 없는 것은 그들의 경제력 규모와 경영방식의 문제보다 절대 농지가 적은 농업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농민들이 거주지 주위에 토지를 집중시켜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진천군과 충주군의 대지주가 4~5개면에 토지를 집중시켰던 것과 달리 이곳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³³⁾

유암리의 농민 가운데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무전농민도 많았다. 이들의 현황은 다음 <표9>와 같다.

32) 충주군의 閔應植·閔丙漢·閔泳駿·閔泳翊 등 여흥민씨 세력은 대표적 부재지주로서 병작지주였다(최윤오, 2010, 「대한제국기 충주군양안의 지주제와 농민층분해」 『동방학지』150, 295~298쪽).

33) 진천군의 대지주들은 몇 개의 면에 토지를 집중시켰다(최윤오, 2005, 「대한제국기 광무양안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충북 진천군 양안 전체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58 ; 김의환, 2010, 앞의 논문, 216쪽).

<표9> 유암리 무전농민의 현황

	이 름	차경지	거주지(칸)
1	유성철	1-25-0	망지곡(5)
2	엄학여	30-6	망지곡(2)
3	김성순	19-7	망지곡(2)
4	허용철	18-4	왕대곡(2)
5	류문옥	16-9	용추곡(2)
6	허윤옥	16-7	용추곡(2)
7	유선경	06-2	상유암(2)
8	전호현	05-1	상유암(2)
9	김영순	01-5	왕대곡(2)
10	유경원	00-8	상유암(2)
11	전득용	00-7	소이개(2)
12	허현철	00-0	왕대곡(2)

유암리의 농민 가운데 12명(19.4%)은 전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였다. 5칸짜리 기와집에 살면서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유성철이 가장 많은 1결 25부를 차경하였는데, 그는 다른 사람의 마름[畝音]일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는 30부 이하의 적은 토지를 차경한 정도였다.

무전농민의 비율이 충주군 전체와 풍덕리가 각각 24.7%와 18%였던 것과 비교할 때³⁴⁾ 비슷한 정도라고 하겠다. 이것은 당시 농민층의 경제상황이 지역과 입지조건에 상관없이 비슷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³⁵⁾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머슴살이와 낱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들 농민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토지소유와 관련시켜 살펴보자. 토지소유 규모가 대체로 25부 미만인 사람들은 빈농, 25부 이상~50부 미만은 소농, 50부 이상~1결 미만은 중농, 1결 이상은 부농

34) 충주 풍덕리에서 1결 이상 차경한 사람은 16명이었다. 4결 44부 2속의 많은 토지를 차경한 경우도 있었고, 2결 이상은 5명이었다(김의환, 2010, 앞의 논문, 217~218쪽).

35) 당시 농민층은 하층 농민층의 몰락과 하향화 추세가 심각하였다고 한다(최윤오, 2010, 앞의 논문, 300~310쪽).

으로 구분한다.³⁶⁾

유암리의 농민 62명 가운데 1결 이상의 부농은 2명(3.2%)에 불과하였다. 중농은 4명(6.5%)이었고, 소농은 11명(17.7%)이었으며, 빈농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무전 농민 12명을 포함하여 전체의 2/3가 넘는 45명(72.6%)이나 되었다. 특히 50부 미만의 열악한 경제상황의 농민은 전체의 90.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현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유암리 농민층의 토지소유 분포

구분	토지소유 규모	농민 수	비율(%)
빈농	0	12	19.4
	0~0.25결	33	53.2
소농	0.25결~0.5결	11	17.7
중농	0.5결~1.0결	4	6.5
부농	1.0결~5.0결	2	3.2
	5.0결 이상	0	0

당시 영춘군 전체 농민 가운데 1결 이상 소유자는 105명이었고, 1인당 평균 토지소유 규모는 19부 3속에 불과하였다.³⁷⁾ 유암리 농민의 토지소유 규모는 평균 23부 2속으로 영춘 전체의 평균보다는 많지만, 충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사정이었다.³⁸⁾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소유지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대여한 토지가 지 포함하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차경지의 수확은 대체로 병작반수가 관행인 상황에서 자경지의 1/2 정도였다.³⁹⁾ 따라서 자

36) 김용섭, 1970, 『조선후기 농업사연구』1, 일조각, 144쪽.

37) 정경임, 2011, 앞의 논문, 20쪽.

38) 1909년 충북의 100석 이상 지주는 모두 207명이었는데, 충주와 청주는 각각 32명과 31명이었고, 영춘은 5명에 불과하였다(神谷卓男, 1909, 『韓國忠清北道一般』).

39) 이현창, 1990, 『구한말·일제초 농가경영의 구조와 상품화폐경제』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84쪽.

신이 소유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와 대여한 토지 및 차경한 것을 모두 더한다면, 중농은 소유지만을 기준했을 때보다 더 상승할 것이고, 소농과 빈농은 줄어든 것이다. 이것은 당시 농민층의 분해가 하향분화 뿐만 아니라 중농 이상의 부농으로 어느 정도 양극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⁴⁰⁾

유암리 농민의 경제적 지위는 충주 풍덕리와 진천군과 비교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만 평야지대·중간지대·산간지대라는 자연환경은 물론 사족의 지위 등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고, 결 단위의 유암리·풍덕리와 정보 단위의 진천을 같게 비교할 수 없지만, 농민층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⁴¹⁾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표11>과 같다.⁴²⁾

<표11> 유암리·풍덕리 및 진천군 농민층의 지위

	토지 규모 (결)	유암 (산간)	풍덕 (평야)	이곡 (평야)	초평 (중간)	백곡 (산간)
빈농	0	19.4	18.0	10.3	12.7	10.5
	0~0.25	53.2	22.0	48.4	42.0	55.6
소농	0.25~0.5	17.7	12.0			
중농	0.5~1.0	6.5	11.0	13.3	18.8	15.3
부농	1.0~5.0	3.2	31.0	21.1	21.8	16.4
	5.0 이상	0	6.0	6.9	4.8	2.2

40) 충주에서 5정보 이상 소유한 부농 4.7%는 전체 토지의 46.6%를 소유하였고, 빈농 55.8%는 겨우 5.6%만을 소유하였다(최윤오, 2010, 앞의 논문, 300~310쪽). 진천에서 0.5정보 이하를 소유한 빈농의 수는 75.0%였고, 지주층과 부농층은 전체의 57.9%를 소유하였으며, 소빈농층은 42.1%를 소유하였다(최윤오, 2005, 앞의 논문, 312~327쪽).

41) 최윤오는 토지의 정보를 단위로 사용하여 빈농은 0~0.5정보, 소농은 0.6~1.5정보, 부농은 1.6~5정보, 지주는 5정보 이상으로 분류하였다(최윤오, 2005, 앞의 논문). 대체로 1정보는 9.168척 규모이다.

42) 김의환, 2010, 앞의 논문, 220쪽 ; 최윤오, 2005, 앞의 논문, 303~304쪽.

IV. 맺는말

유암리는 성종 때 유인부가 입향한 이후 강릉유씨의 동족마을이 되었다. 광무양안에는 마을에 상유암과 갈치 등 8군데에 자연 부락이 있었고, 모두 62호가 있었다. 이 가운데 유씨는 1/3에 해당하는 20호(32.3%)가 살았고, 허씨는 10호(16.1%), 엄씨는 7호(11.3%)가 있었다. 마을에는 유성철의 5칸, 유덕호의 4칸짜리 기와집 2채가 있었고, 이경선은 2칸짜리 초가 2채를 소유하였으며, 평균 2.3칸 규모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마을의 토지는 17곳에 모두 27결 72부 2속이었다. 밭은 17결 69부 2속(63.8%)이었고, 논은 10결 3부(36.2%)로 다른 영춘의 지역과 같이 밭이 더 많았다. 마을에 거주한 16개 성씨 가운데 유씨는 5결 31부 6속(19.2%)을 소유하였고, 경작은 이보다 훨씬 많은 8결 99부 5속(32.5%)이었다.

1결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불과 2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소유 규모는 23부 2속이었으며, 무전농민은 12명(19.4%)이었다. 이것은 영춘 전체 평균 19부 3속보다는 많았지만, 충주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형편이라고 하겠다.

유암리 농민층의 토지소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충주·진천 등 다른 군현에 비해 대지주가 없고 토지 소유의 규모가 적다는 점이다. 유암리 농민 가운데 1결 이상 소유한 사람이 2명에 불과하였고, 최대 지주인 허현이 1결 99부 9속을 소유한 정도였다. 이는 궁벽한 산촌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

둘째, 농민들이 적은 규모의 토지를 경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차경한 규모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유성철만이 1결 25부를 차경하였을 뿐 대부분은 70부 이하의 적은 규모를 차경하였다. 이것은 농지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경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지역 사정을 보여준다.

셋째, 다른 지역과 달리 경영지주와 병작지주는 전혀 보이지 않았

고, 거주지 주위에 토지를 집중시켜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한 모습도 없었다. 이것은 지주들의 경제력 규모와 경영방식의 문제보다 절대농지가 적은 농업환경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농민층의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열악하였다는 점이다. 유암리의 농민 62명 가운데 1결 이상의 부농은 2명(3.2%)에 불과하였고, 중농은 4명(6.5%)이었으며, 소농은 11명(17.7%)이었다. 빈농은 무전농민을 포함하여 전체의 2/3가 넘는 45명(72.6%)이나 되었고, 50부 미만의 열악한 경제상황의 농민이 90.3%를 차지하였다. 더구나 무전농민이 12명(19.4%)인 것을 감안할 때 당시 농민층의 계층분화를 짐작할 수 있겠다.

[논문접수 : 2012.10.31, 심사시작 : 2012.11.20, 심사완료 : 2012.12.8]

주제어 : 유암리, 강릉유씨, 초가, 광무양안, 시주, 시작, 경영지주

<ABSTRACT>

Land Ownership of the Yuam Village in
Yeongchun-gun during the Korean Empire Period

Kim, Eui-Hwan

There were sixty two folk houses in eight small hamlets, Yuam village(游巖里) of Yeongchun-gun(永春郡). Among them, the number of Gangreung Yus' folk houses were twenty(32.3%). On average, each of them lived in two point three kans(間) of thatched houses. Yu-Seongchil lived in the biggest house, five kans of thatched house.

Land of village was distributed over seventeen areas. Fields were seventeen gyeol(結) and sixty nine bu(負) and two sog(束)(63.8%) and rice paddies were ten gyeol and three bu(36.2%). Therefore, total fields were twenty seven gyeol and seventy two bu and two sog. Gangreungyu owned five gyeol and thirty one bu and six sog(19.2%)

At that time, landlords' landholding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re were no big landowners and the scale was not big. The owners of 1 gyeol and over were only two persons. The richest landowner owned just one gyeol and ninety nine bu and nine sog.

Second, landowners who ranked high cultivated land ranged by themselves. The third, differently from the Chungju-gun,

managerial landowners and sharecropping landowners many appear. landowner who ranked high was not managerial and sharecropping landowner.

Lastly, landowner was not centralized their lands around their residential distric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management. However, twelve residents(19.4%) had no their own lands.

Now, take a look at residents' economic status in Yuam village. Among sixty two residents, the rich farmers of 1 gyeol and over were only two persons(3.2%) and each of middle-class farmers and small farmers was fifteen persons(24.2%). Poor farmers were forty five persons(72.6%) including twelve farmers who had no own lands.

This show the collapse of lower farming class and the uptrend of landowning class was accelerated. As a result, the polarization of landholding has become more serious.

Key-words : Yuam village, Gangreung Yus' family, thatched house, Gwangmu yangan, landowner, tenant farmer, managerial landowner.